**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누가복음 18장 15-30절>**

**15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최근 한국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면서 논쟁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냐 정부수립이냐” 하는 것입니다.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건국되었고, 1948년에 들어선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입니다.

제헌헌법 서문에서도 “대한민국은 3.1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러이러한 정부를 둔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정통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려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1919년엔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19년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는, 제헌헌법을 기초했던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의 근거 위에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지만 그 동안 일제가 강점했기에 정부를 강토 안에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임시정부”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하든 1948년으로 하든 뭐 그리 중요하냐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를 보는 큰 흐름과 관점의 차이일 뿐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가치에 토대를 두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을 1948년으로 보려는 입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하에서 근대화가 되어 그 힘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다”는 관점인데, 문제는 이로부터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 대한 역사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보려는 입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서 세워졌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서 세워져, 민주세력에 의해 발전되고,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간다는 역사의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가”에 대해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판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1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신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회개는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구원은 그렇게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큼 다 살고 죽은 뒤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세상 끝에 이르러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즉 공간적으로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와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믿음으로만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이 아닌 미래의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1919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당시 영토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국민도 모호해진 상황 속에서, 그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다만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존재를 알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중 다수는 그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나라에 대해 그건 가짜이거나 허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당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했던 사람들, 그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고 기고만장하던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정통성이 없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통은 어려운 중에도 그 보이지 않는 나라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신념과 행동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으로 들어와 이곳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셈인데, 이 두 세계는 우리 눈에 명확히 구분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만이 우리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또 하나의 세계를 인식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은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의 흐름을 좇아 사는 삶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사는 삶 중에서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직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일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세상 끝에는 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게 실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닌 모든 속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치켜세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들에게 보이는 순수하고 온전한 신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지금 제가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를 향해 웃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제 품으로 넘겨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지도 모르고 아이는 공중에서 두 팔을 벌려 아빠 품으로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멋진 순발력으로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뽀뽀를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온전한 신뢰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고 영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근심 속에 슬픈 얼굴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여 말씀해주신 예수님의 제안에 온전한 신뢰로 응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실재 속으로 온전히 뛰어들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을 주문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삶의 남은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죽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부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미래의 언젠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힘있게 박차고 뛰어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실재로 인정하며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을 의연히 거부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라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끝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내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처럼 내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가 내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것을 염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가진 여인이 출산이 임박해오면 두려움으로 인해 아기 가진 것을 후회하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도 이전보다 더 큰 행복에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 나라를 향해 뛰어드십시오!

내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십시오!

거짓과 불의와 다툼과 파괴가 가득한 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회복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 여기서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온전한 신뢰로 그 나라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은 온전한 신뢰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 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